

고은 불교 대하소설

〈지난 줄거리〉

파도에 휩쓸려

아침 보리죽을 부족(不足)과 충족(充足) 사이에서 한 그릇씩 먹고 나면 해가 붉은 떠올라 이미 그 멍들어버린 갈망한 빛살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게 된다.

섬 안의 두 사람 뿐 아니라 섬의 해송(海松) 숲 구석에서 살고 있는 몇몇 짐승들도 어쩌다 술밭을 나오면 그런 햇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다가 그 작은 점침(點침)과도 같은 눈을 지긋이 감아두어야 하였다.

어디 그 뿐인가. 파도의 물마루인들 햇빛을 어느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 직통으로 받아 그 순간순간의 찬란한 햇빛에 물들어 제 몸이 깨어지며 반짝이는 것이었다. 그런 파도의 눈부신 반사광(反射光)은 그것을 보는 눈을 눈부시게 만들 거니와 그 빛살에 물든 수많은 물마루들에게도 눈을 달아주어 그 눈을 부시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러한 아침 햇빛은 하늘 속의 지난 밤 어둠 따위를 일제히 쫓아내고 그 허허한 공간까지 깨끗이 빗질한 머리칼에 가까운 수많은 현(絃)들을 뒹뒹 튕겨내며 끊임없이 교직(交織)시키고 있었다.

하물며 그런 공간의 현 속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날아다니는 갈매기야말로 그 현들을 함부로 건드려 어떤 우너의 소리를 더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래서 인지 갈매기의 날개에 붙어있는 햇빛에는 어떤 소리들이 머금어있는 것 같았다.

그 소리들은 짐작 어쩌다가 던지는 갈매기 울음소리의 탁음(濁音)때문에 특별한 주파수(周波數)를 맞추지 않은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인 모른다.

아니 이런 사실이 행여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그려치기 십상이다. 마치 음양이 서로 통하지 못함에 따라 성육이 극심해지면 귀신과 교접하기에 이르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과의 성교란 몸중 방사(放射)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온세상의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서로 통하여 결집이 없고 막막이 없는 눈부신 아침의 시작이야말로 이렇듯이 눈부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죽을 먹고나면 그 죽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놓자마자 밖으로 나간다.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바닷바람의 한 부분이 그들의 옷 입은 가슴팍까지 파고들어 그때까지의 조울한 심정을 풀어놓게 만드는 것이다.

우너의 머리칼이 날랐다. 그렇게 머리칼이 날라서 그녀의 인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까지 하였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공양 뒤의 산책으로 심신을 내던지듯이 풀었다가 오전 입정(入定)에 드는 것이었다.

인담은 우너가 오기 전까지는 혼자였으므로 도리어 말 몇 마디를 그의 환경에 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묻지 않는데 스스로 말하기(無問自說)로도 세상의 잠든 중생을 일깨우는 설법과도 같았다.

“잘 잤느냐?”

라고 앞자 뒤의 바위덩어리에 대고 인사를 나누거나 “너도 잘 잤느냐?” 라고

갈매기에게도 한 마디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자신에게 한두 마디 주는 독백이 되기도 하였다.

“인담화상! 그대는 타화지재천(他化自在天)의 마왕(魔王) 파순(波旬)앞에서도 죽을 지경을 벗어나 당당할 수 있겠는가. 마치 가가스로 포착한 태풍 끝의 배가 닿은 십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오는 말이라면 우너 밖에 들을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자 앉읍시다.”라는 말 뒤로 방에 들어온 두사람은 갈가부라지고 굳어져 갔다. 그들의 몸 속을 드나드는 태식법(胎息法)에 가까운 드문 숨결만이 방안의 정적에 갇히고 있었다.

이렇게 두어시간을 지나면 인담의 몸 속에 모래시계라도 지니고 있는 장기(鐵器)가 들어서 그곳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지 어김없이 그가 단단히 접힌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것이다.

좌선도중의 휴식인 포행(布行)을 아예 없애는 정진이었다. 이런 수행이 처음에는 우너의 발자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거의 강권(強勸)에서 앞섰더니 파도가 바위를 들이치는 소리가 대어섯번 들리는 뒤에 발떡 일어나서 “나 육지로 건너가겠어요. 데려다 줘요.”하고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암자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것저것 살림살이들을 마구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좌선시간에 그녀 혼자 섬의 여기저기를 싸질러 다니는 것을 제지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는 어엿이 선택(禱客)이 되어 인담과 서

충청남도 서해 바다위의 무욕도에서 독신 수행하던 인담은 어느날 꿈에 나타난 담인스님으로부터 고려대의 시인 입춘이 남긴 〈서하문집〉이 있는 곳을 찾아 가라는 말을 받는다. 인담은 송도 뇌장사에서 문집과 〈수미행〉이라는 소책자를 얻게 되고 무욕도로 오는 길에 우너라는 처녀를 만나게 된다. 우너는 정신이 약간 나가버린 처녀인데 뱃사람에게 팔려가는 길에 인담을 만나 무욕도로와 인담과 함께 수행 생활을 하게 된다. 인담은 우너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남자로서의 변민도 어

필 수 없이 겪게 된다. 입춘의 문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인담은 우너를 남겨두고 한양으로 들어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긴 후 다시 무욕도로 돌아 온다.

무욕도에서 반년여간을 혼자 남아 있던 우너는 그사이 수행의 경지가 무척 높아져 있었다. 완숙한 여인의 자태에서 인담은 말로 표현 못할 경의감과 함께 육체적 변민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담은 일상의 수행으로 돌아 오게 되고 우너도 고조녀한 여인으로 인담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 한다.

니다. 그의 선대(先代)나 동료들도 거의가 바다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아니, 어느 때는 몇 척의 배가 한꺼번에 휩쓸려 박살이 났으므로 그 배마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물귀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칠포나 어디에나 어촌에는 제삿날이 같은 집이 하도 많아서 한발쯤에 신위(神位)를 모시는 등불을 밝힘으로써 먹방으로 지내는 여느 밤과

는 달리 난데없는 불빛이 연달아 비치게 되는 것이었다. 우너가 공양미를 바치고 간 어부의 배가 저만치 떠났을 때 인담에게 불속 아픈 소리를 하였다.

“그래, 종이 살생을 많이 하라고 축원해도 되어요?” 쌀 두어실 받았다고... 살생을 만류하기는커녕.....”

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라는 어부의 뜻에 호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림 · 최규일

낙조에 물든 우너를 파도가 끌어가자 인담은 ...

로 등진채 앉아서 목조선(鰓鰒線)에 익숙해가는 것이다.

현양실에서 돌아온 뒤 인담은 한번 풀으로 건너가 양식을 실어왔다. 그 뒤로 불심(佛心)과 함께 공양미 두 섬이나 실어왔다. 마침 갈치잡이에 나서는 갈치라 용왕제 쫓겨제를 지낸 뒤에서 두 개의 황포 돛배에는 홍·황·청·백의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신들린 무당의 혼백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인담이 어부에게 사의(謝意) 대신 한마디 먹담을 하였다.

“이렇게 색색으로 꾸며야 풀 속의 고기들도 좋아하고 모여들겠소.”

“스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힘찬 파도를 탄다.”

그렇지도 모른다. 인담의 말은 먹담이 되 어부의 말은 절실한 진담이었다. 바다 위의 생업(生業)이란 결국 그 바다와 바다의 형세를 규정하는 하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오랜 어부생활이건만 바다를 마음대로 부려본 적이 없다. 그 뿐이 아

어쩌면 아침 햇살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 어떤 것 파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엄성이 바로 낙조의 하늘과 그 낙조의 빛을 맞받아내는 바다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인담보다 우너가 황홀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 가슴의 숨이 팍 찼다. 그녀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그 낙조 속에서 실컷 물들고 있었다. 낙조야말로 색의 최고 상태였다.

우너가 인담에게는 가깝하였다.

“하기는... 그러나 고기잡이라고 부쳐 넣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나야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비는 것이기보다 저 어부의 안전을 비는 것일 뿐입니다.”

“슬쩍 피하십시오. 스님.”

“하기는... 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저 배가 빈 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달밤에 허공을 가득 실고 돌아오기를.”

“이러다가는 참선시간을 넘기겠소.”라고 인담이 그녀의 말꼬리를 잡았다. 두사람의 하루는 이리저리 보내지고 있다.

어느덧 오후였다. 그들은 공중(空中)홍물림의 공작에 얽수 두 마리처럼 능형능형 옷자락을 날리며 섬의 북쪽까지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멀리 수평선 쪽에 여러 척의 배들이 떠 있는 것이 잘 내다보였다. 비야흐로 서해 전체의 바다와 하늘이 낙조의 세상으로 가득하였다. 그 시별건 낙조 가운데는 자세히 살펴보면 갖가지 빛깔들이 절묘하게 배합된 거대한

자연의 화폭(畫幅)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아침 햇살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 어떤 것파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엄성이 바로 낙조의 하늘과 그 낙조의 빛을 맞받아내는 바다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인담보다 우너가 황홀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 가슴의 숨이 팍 찼다. 그녀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그 낙조 속에서 실컷 물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몸도 낙조의 일부가 되어 낙조가 그녀의 뒤에서 있을 때는 낙조의 육신이라고 말할 만 하였다.

“여기서 떠나지 않겠어요.”라는 말이 겨우 나올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의 숨이 막힌 상태에 구멍이 뚫려서 숨결이 제대로 드나들게 되었는지 모른다.

인담은 그런 우너에 압도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야지요.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공부해야지요.”

파도의 화답도 나올수 없게 그저 묵묵히 우너의 시선에 종순해서 낙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들도 어느 조각 하나 예외없이 금빛으로 물들어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것

은 오랜 악(惡)에 대한 가장 섬스러운 전장에서 돌아오고 있는 개인의 야전부대처럼 뿔뿔이 떨어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곳으로 찾아오는 행렬처럼 모험에 찬 경건성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낙조야말로 색의 최고상태였다.

인담은 그것을 여태까지 노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한 처지였다.

그가 한별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는 〈서하문집〉의 시를 훑어보다도 낙조를 노래한 것은 언뜻 눈에 띄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저으기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너는 낙조의 이 정당한 사건을 시(詩歌)따위의 소재로 삼을 의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낙조 그 속에 몰입되는 그녀 자신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었다.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되풀이 말하였다. 끝내 그녀는 바실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무릎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풀려졌다. 그러자마자 나즈막한 바위쪽으로 그녀가 쓰러졌다. 다행히 날카로운 너살은 없었다. 이어서 그 바위에서 한번 더 쓰러졌다.

그곳은 벌써 파도 그르머리였다. 그녀는 대번에 온몸의 옷이 그 파도에 쓸려 적셔졌다. 파도가 그녀를 저만치 끌어갔다. 인담이 그 물 속으로 몸을 던져 헤엄쳐 갔다.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동기화서공전문예제

세주판금

대표 이봉규

직원일동

충북 청주시 봉명동 826번지 상가 27호

☎ (0431) 63-0822

야간 (0431) 56-015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원장 헤도

신도회장 이하경 박성반

신도회원일동

부산시 영도구 동산동 522-1

☎ (051) 402-7077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김정태

상임부회장 한재구

부회장 백봉도, 서춘석, 최용원

감사 최철

총무이사 김윤환

재정이사 양재달

〈회원일동〉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47-14 국제 OT 1805호

☎ (051) 466-7174-5 FAX 466-7176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암회기도도량

삼각산도선사

주지 차동광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993-3161-3

주지실 993-5002

FAX 993-3164

부산직할시

불교연합회

회장 조정관

임원일동

부산시 진구 양정 3동 393의 2(불교회관 3층)

☎ (051) 867-0501-3

FAX (051) 867-0504

해동불교대학

학장 張二斗 대학원장 金知冕

교육원장 鄭大隱 교무처장 李治蘭

한국불교 해외전법회

The Korean Buddhist Overseas Mission

발기인 일동

서울 종로구 낙원동 110

☎ 741-0495-6 FAX 763-4603

(사)법화경교단

법화삼부경강원

법주 최공덕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전화 대구 952-8711, 955-6579

부산 645-6224, 632-8940